

3 부 중 제 2 부 [공부 다시 시작하기]

-일본 동경시 수도국장 이름?

.

"무라카와 쓰지마"

(물 아까워 쓰지마)

앞으로 21 세기는 물 부족이 심각하다.

-택시에서 있었던 실화

1

택시에 손님이 탔다.

운전사: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낙성대로 갑시다.

운전사: 낙성대가 어디에 있지요?

손님: 사당동 지나서 서울대 못미처서.

운전자: 낙성대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낙성대는 무슨학과가 제일 썸가요?

#2

밤에 술취한 손님이 택시를 탔다.

운전사: 어데로 모실까요?

손님: 응 고대로 가자구.

운전사: 네 알았습니다.

고려대앞에 거의 다 와서

운전사: 고대 정문 앞입니까? 후문 쪽입니까?

손님: 내가 언제 고려대로 가자고 했느냐?

운전자: 아까 타실 때 고대로 가자고 하셨는데요?

손님: 아참, 이런 운전사 보았나?

내가 언제 고려대 가자고 했나?

고대로(골장) 가자고 했지.

-점입가경

어느 교통순경이 차를 잡았다.

순경 : "신호 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주세요.

운전자: (창을 열면서 말한다) 좀 봐주세요. 낮에 술을 마셨더니...

순경: 아니, 음주운전이라구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한다.

아내 : 한번만 봐 주세요. 이이가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순경 : 아니, 무면허라구요?

뒤에 있던 할머니와 손자가 투덜거린다.

할머니 : 거 봐라.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댔지.

손자 : 내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아 봤어!

순경:

-똑똑한 새끼손가락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

엄지: 난 여기서 힘이 제일 세!

검지: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중지: 난 여기서 제일 키가 커!

약지: 내가 없으면 결혼반지도 못껴!

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특출나게 잘난게 없는지라
한참을 생각하던 새끼 손가락..., 마침내 결론을 냈다)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여..."

-바다

차가운 바다는?

"떨렁해"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

그럼.....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받아 !"

-엽기적인 가족의 생존방식

한 가족이 달동네에 살았다.

그 가족은 가난과 질병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삶에 너무 지쳐 63 빌딩 옥상에서
집단자살하기로 했다.

그 가족은 모두 손을 꼬옥 잡고 63 빌딩에서 뛰어 내렸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

.

먼저 제비족 아빠는 제비처럼 날아갔다.

그 다음 바람둥이 엄마는 바람처럼 불어 살아났다.

그리고 형은 비행 청소년이라 살아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내는 .

.

애가 좀 덜 떨어져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

-자살하려고요

너무나도 삶이 팍팍한 한 러시아인이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느날 저녁, 그는 빵을 한웅치 옆구리에 끼고 시골길을 걸었다.

마침내 철로가 나타나자 이 사람은 그 위에 누웠다.
얼마 후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여보쇼, 거기 철로 위에 누워 뭘 하는거요?"

"자살하려고요."

"그런데 그 빵은 뭐요?"

"이거요? ...

이 지방에서 기차 오는 걸 기다리려면 굶어죽는다 해서요."

-보신탕집에서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명이 보신탕 잘한다는 집에 갔다.
주문 받는 아줌마가 와서는 사람을 하나씩 세면서 말했다.

"하나 둘 셋...

"전부 다 개죠?"

그러자 다섯명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자니 윤이 했다는 농담

삼계탕과 보신탕을 같이하는 집에 간 손님들에게 주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 아닌 분 손들어보세요?"

-뛰는 놈 있으면 나는 놈 있다

한 골동품 장사가 시골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간에서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아주 귀한 골동품이더랍니다.

그래 그것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밥그릇을 사자고 하면 팔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개를 사자고
주인에게 흥정합니다.

별 볼일 없는 개를 후하게 십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주인이
기꺼이 그러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를 샀습니다.
이제 밥그릇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주인장, 그 개 밥그릇까지 끼워서 샅시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안됩니다.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백 마리도 더 팔았는데요."

-그래도 직장인이 낫지

두 직원이 회사가 교도소보다 안 좋은 이유를 들먹이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직원 A : “교도소는 세끼 밥을 무료로 먹여 주는데,
회사는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하잖아?”

직원 B : “그러게 말이야. 교도소에서는 가끔 TV 를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TV 보면 바로 찢리지.”

직원 C : “하루 종일 2 평짜리 공간에 갇혀 있는 건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이 말을 들은 사장이 두 사람을 불렀다.

사장 : “기쁜 소식이 있네. 자네들은 가석방되었어.
이제 자유의 몸 이라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네.”

-웃고 있는 시체

시체실에 3 명의 시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시체 모두 웃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관이 물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는 거요?"

"네, 이첫번째 시체는 일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번째도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일등 했다고 충격 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

검시관이 물었다.
"이 세번째 사람은요?"

그러자,

"이 세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어요?"

그러자 시체실 직원이 하는 말...,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웃자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 맹자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 순자

성매매설을 주장한 사람은? ===== 팔자

성권유설은? ===== 하자

성개방설은 ===== 주자

성불가설은? ===== 고자

-바뀌서 생각하기

가난했던 두 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한 친구가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하, 자네! 정말 반갑네."

"어이구, 자네. 어떻게 그리도 성공을 했나?"

"응, 별건 아니고...."

거시기에 바르면 바나나향이 나는 향수를 발명했거든."

"오 그렇군."

그리고 둘은 헤어졌다.

1년 후 두 친구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였던 친구보다 가난했던 친구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자네! 어떻게 된거야?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군."

그러자 친구자 말했다.

"하하! 자네 아이디어를 좀 빌렸어.

바나나에 바르면 거시기 냄새가 나는 향수를 발명했다네!"

-결과 속이 다른 놈

오뎅은 김밥을 매우 싫어했다.

결과 속이 다른 놈이라는 이유로...

어느 날 주인이 잠시 나간 틈을 타서 오뎅은 포크를 집어 김밥을 마구 찢러댔다.

이어서 들리는 고통스런 비명소리

"그만, 그만. 제발 그만!"

한참을 찢르다 지친 오뎅이

"결과 속이 다른 네가 나는 싫어!"

그러자 김밥이 하는 말

"지는 순덴디유."

-김밥 이야기

김밥이 경찰서에 갔다.

왜?

참기름이 고소해서.

-사오정의 눈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선생님 : 야.거기 맨 뒤, 필기 안하고 뭐해?

사오정 : 안 보여서요.

선생님 : 그래? 니 눈 몇인데?

사오정 : 제 눈은 둘인데여.

선생님 : 아니,아니.그거 말고 니 눈이 얼마나냐고?

사오정 : 제 눈은 안 파는데여.

선생님 : 니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그러자 사오정이 하는 말.

사오정 : 제 눈은 뭐 나쁘고 착하고 그런거 없는데요.

-한국 vs 이란

며칠전 점심시간 팀장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란하고 축구하지?"

그랬더니 한직원이 대답했다.

"오늘 일안해요?"

팀장님이 다시 대답했다.

"아니..왜?"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다시 대답했다.

"오늘 일안하고 축구한다면서요?"

-러시아와 미국의 펜 대결

1969 년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려던 시점에서,
볼펜이 우주에서 사용할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참고로 볼펜은 잉크가 밑으로 내려오는 힘에 의해 볼에 묻혀 쓰는거다.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볼펜을 사용할수 없다.)

그래서 나사는 10 년동안 120 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우주, 물속, 어느장소에서나 쓸수 있는 볼펜을 드디어 개발해 냈다.

새로 개발한 볼펜을 들고 우주로 떠난 미국 우주인들은
우주정거장에서 만난 러시아 우주인들을 놀려댔다.

그러자 러시아인들을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그냥 우주에서 연필을 쓴다...!

(당근이지, 잘 써진다.)

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때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거 같다.
그런 것 같다!

-염라대왕의 현명한 판단(?)

어느날 염라 대왕이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저승의 문 앞에서 저승사자가 어떤 남자와
시끄럽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참다 못한 염라대왕이 말했다.
"무슨일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냐?"

그러자 저승사자 왈:
"예, 이승에서 이 자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지옥에 보내려 하는데
자신도 착한 일을 한적이 있다고 꼭
천당엘 가야 한다지 뭐니까?"

"그래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예 예전에 길가다가 500 원을 주었었는데..
그걸 제가 쓰지 않고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천당엘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염라대왕 왈...
"야! 애 500 원 주고 지옥 보내."

-공통점은?

<문> 자식과 구름의 공통점은?

<답> 언젠가 눈앞에서 떠나버린다.

<문> 죽은 총잡이, 탄 봉어빵, 임신한 처녀의 공통점은?

<답> 늦게 뻘다.

-영문이름은?

여행사 : 감사합니다. △△여행사입니다.

손님 : 뉴욕 가는 비행기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여행사 : 언제, 어떤 항공사로 예약해드릴까요?

손님 : △월△일 ○○ 항공사로 예약해 주세요.

여행사: 그럼,손님 영문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손님 : (당황하며) 영문이름이 꼭 있어야 하나요?

여행사 : 네,예약할 때 영문성함이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손님 : (머뭇머뭇하며) 에에... 으음... 꼭 있어야 되죠?

여행사 : 네,국제선 예약에는 꼭 영문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 :예. 그럼, 그냥 ‘마이클’로 해주세요!

-화장지?

두 남자가 동시에 화장실로 들어갔다.

시원하게 볼 일을 마친 것까지는 좋았으나 휴지가 없었다.

불현듯 옆 사람과 동시에 들어온 것이 생각난 주인공.

아래로 뚫린 공기 구멍을 통해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형씨! 화장지 남은 것 좀 없수?"

"없는데요."

"그럼 혹시 쓸 만한 거라도."

"없다니까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우리의 주인공.

갑자기 지갑에서 1만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더니
옆 사람에게 들이밀며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혹시 1,000 원짜리 10 장이라도 없나?"

-이러면 대책이 없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몇층에선가 멈추고 한 아저씨가 뒀다.

나 : 안녕하세요?

아저씨 : (잠시 동안 의아한 눈길로 보다가)
저를 아세요?

-하늘나라 공사 중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어 하늘나라에 갔다.
평소에 얼마나 잘못 살았던지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갔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 가보니 '공사중' 팻말이 붙어있었다.
투덜거리며 돌아서다가ยม라대왕을 만나 이유를 물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고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랑 불가마를 많이 다녔는지
지옥불 정도엔 고떡도 않는것 같았다.
'아! 따뜻하다. 아! 시원하다'고 한다.
지옥 생긴 이래 처음 개수 공사를 하고 있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는 천국으로 갔다.
그랬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었다.

옥황상제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어찌나 성형 수술을 해대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동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 이라고. ..

-상상력

채용된 지 몇 주가 된 청년이 인사부장실로 불려갔다.

"이거 어찌자는 건가?" 하고 부장은 따졌다.

"자네는 입사하면서 5년간의 유경험자라고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첫 직장이지않아."

청년 왈,

"모집광고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장난 저울

똥순이가 한달간 힘겨운 다이어트를 한 후 목욕탕에 갔다.
그리고 저울대에 체중을 달았는데 이상하게 몸무게가 똑같았다.

그때 목욕탕 종업원이

"그 저울 고장 났어요"

하는 것이다.

똥순이는 그 말을 듣고

"휴~ 다행이다. 난 또 살이 안 빠진줄 알고..."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목욕탕 종업무원 왈

"하지만 그 저울은 10kg 만 더하면 정상이 돼요"

-목욕탕 주인 법칙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마침내
만개한 꽃봉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